

데스크 시각

‘셰익스피어 마을’이 흥(興)한 까닭은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전문기자

지난달 초, 런던 시내의 킹스크로스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서쪽으로 2시간 30분 달려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Stratford-upon-Avon)에 도착했다. ‘에이번 강가의 스트랫포드’라는, 낭만적인 이름을 지닌 마을이다. 종착지가 아닌데도 런던에서 기차를 탄 수백여 명의 승객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에서 우르르 내렸다. 기차역을 빠져나와 마을로 들어서자 수백 년 된 아름다운 나무가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았다. 문득 우리나라 시골의 당산나무가 떠올라 마음이 훈훈해졌다. 시내 쪽으로 10분 정도 걷다 보니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대형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21세기에 중세시대 시계라니! 자칫 ‘뒤어 보일 수도’ 있는 시계는 그러나, 의외로 주변 건물들과 잘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은 마을 전체

가 16세기에 ‘땀취져’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년)의 생가와 그의 발자취가 스며 있는 공간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이다.

한 해 600만 명 찾는 마을

그래서일까.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다.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생가와 확장 시절을 보냈던 그램머(grammar)학교, 무덤이 있는 성 트리니티 교회, 그의 아내인 앤 해서웨이의 집, 어머니와 딸, 손녀의 집이 옛 모습 그대로 간직돼 있었다. 특히 나무 골조를 덧댄 튜더 양식의 셰익스피어 생가처럼 주변 상가나 관공서, 심지어 은행 건물들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꼭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마을을 재현해 놓은 듯했다.

‘셰익스피어 마을’의 숨겨진 매력은 작은 가게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 평도 채 안 되는 엔틱 샵에서는 촌티나 찻잔·시계 등 옛날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고, 소박한 식당에서도 셰익스피어가 생전에 즐겼다는 차와 케익을 맛볼 수 있었다. 비좁은 가게에서 골동품을 구경하고 셰익스피어 초상화가 걸려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니 450여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 느낌이 들었다. 셰익스피어 생가 옆에 자리한 아트숍도 마찬가지였다. 노트·볼펜 등 문구류에서부터 립스틱·초콜릿·넥타이·양산·스카프·맥주 등 수백여 종의 기념품이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했다. 한 해 방문객이 6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 마을이 벌어들이는 관광수익은 아마도 엄청날 것이다.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셰익스피어생가재단(Shakespeare Birth place Trust·이하 생가재단)의 공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한때 셰익스피어 생가는 경매에 부쳐지는 등 절거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1847년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가끔 모금 캠페인을 벌인 끝에 3000파운드에 구입해 국가기념관으로 지정, 지금까지 영구 보존되고 있다.

인물 마케팅에 관심을

이들 계기로 설립된 생가재단은 셰익스피어 관련 문화재들을 통합 관리하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키웠다. 특히 일 년 내내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셰익스피어 탄생일’ 등 크고 작은 이벤트를 개최해 마을 전체를 역동적인 문화 현장으로 변신시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2만 3000여 명이었던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의 인구는 지난 해 10만 명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셰익스피어가 마을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 ‘셰익스피어 마을’ 뿐일 것인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한적한 시골이었던 프랑스의 오베르 쉬르 우아즈는 네덜란드 작가 반 고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전 고작 73일 동안 머물렀던 하숙집 방과 오베르 성당 등 작품 배경지를 순례 코스로 엮어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에디버러는 ‘해리 포터’ 작가 JK 롤링이 자주 찾았던 카페 ‘엘리펀트 하우스’를 문화 상품으로 가꾸며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문화도시들은 유명 인사들을 활용한 인물 마케팅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예향 광주는 인적(人的) 자산을 브랜드화하는 데 소홀한 나머지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흔히 유명 인사나 ‘인물’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지역’을 방문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한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가늠할 때 사람만큼 경쟁력 있는 것도 없다. 사람은 쇠락한 도시를 살리기도 하고, 색깔 없는 도시를 문화의 성지로 바꾸기도 한다. 사람이 곧 브랜드인 시대다.

/jhpark@kwangju.co.kr

은편칼럼

늙은 여자가 좋다



고성현 시인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며 더위 속에 떨어져 잔다. 쫓쫓쫓, 혀를 차다가 그 모습을 몰그리미 쳐다본다. 허, 자그맣게 코까지 골고 있다. 입 안에서 단내가 풀려 나니는 듯하다. 이런 모습은 오랜만에 본다. 좋은 꼴은 보여주지 않고 코까지 고는 게 그리 예쁘지 않다. 휴일임에도 집안에 처 박혀 종일도록 기다리고 있었건만 무얼 했는지는 몰라도 나갔다 들어오더니 오자마자 자는 꼬락서니가 마땅치 않고 밉다.

TV를 쳐다보다가 그것도 무료해 다시 아내의 자는 얼굴을 쳐다본다. 얼굴이... 세상에 꾸글꾸글하다. 완전히 할머니다. 가로 주름과 세로 주름이 만나는 볼은 사뭇 거칠다. 거침, 볼 끝에도 갈도 갈게 생

겼다. 거칠게 밀어보지만 반응이 없다. 늙었다. 어차피 쳐다보는 나도 늙은 몸이니 피장파장이다. 그래, 어디서 무얼 하든 온 것일까. 정말 몸이 힘들 정도로 거친 일을 하고 온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미안한 일이다.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고 온 사람에게 이러구러 언짢음이라니. 쫓쫓쫓, 마음으로 내게 한마디 건넨다.

사실 아내는 그동안 많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세상에 착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말 잘 듣고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으랴만, 그 중 우리 아이들은 조금 뒤쳐진 게 사실이었다. 그 책임의 반은 분명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코 좀 곤다고 타박해서는 아니 된다. 간신히 대학에 들어갔어도 다시 취직이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을 만나 시련을 겪었으니 그 또한 아내 가슴을 훑았음이 분명하다. 그것도 반은 내 책임이다.

본인은 또 어떤가. 직장에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늘 한 데로만 돌았고 승진도 늦었다. 그러나 마음고생도 있었을 것이고, 더러 부끄러운 경우도 당했을 것이다. 거기서도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 저 얼마간의 주름살은 나도 함께 그린 셈이

다. 또 있다. 20년을 고부가 함께 살았다. 어머니가 좋은 분이었다고 해도 며느리 입장에서 불편했을 것이 분명하다. 돌아가시기까지 어머니의 병수발도 아내가 책임졌으니 그 또한 힘들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젊어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가. 늦게까지 퍼마시고 한밤중에 귀가해서도 남자는 이유로 큰 소리를 많이도 쳤다. 특히 12시가 넘어서도 꼭 밥을 챙겨 먹는다고 소란을 피웠다.

아내가 다 큰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할 때면 나는 슬쩍 돌아앉는다. 그런 사연이 있는지라 얼굴이 소그라지고 머리가 하얗게 섰다고 큰소리까지 칠 수는 없는 일이다. 친구의 보증을 서 큰돈을 날렸을 뿐 아니라, 주식을 사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를 만들었으니 그 또한 죄가 아닐 수 없다. 삶의 긴 터널을 그렇게 지나왔음에도 온몸이 동글동글해졌다. 살을 빼지 못한 아내에게 예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 데도 남김 밥이 아깝다고 꾸역꾸역 먹어 치운다. 그 모양이 낯설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가 밥 한 톨이라도 흘리면 천벌을 받다고 했던 말씀을 떠올리니 김치냄새가 몸에 밴 것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

다. 처음에는 몰랐다. 아내가 그토록 술을 좋아할 줄이야. 그럼에도 아내는 이제껏 술을 마시지 않고 내 술국만 끓여왔다. 아내의 늙은 모습을 들여다보며 이제 내가 술국을 끓이기로 마음먹는다.

늙은 아내들에게는 만월(滿月)이 담겨 있다. 늙은 여자들에게는 세상의 온갖 풍상이 담겨 있다. 희로애락이 녹아 있고 인내와 헌신이 바위처럼 단단하다. 풀처럼 흐르는 사랑은 굽힘없이 아래로 흘러 그들의 자식 사랑은 쇠막대처럼 튼튼하다. 그들의 가슴에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태워 만든 삶의 분부(奮鬥)가 남는다. 그러나 어찌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으리오.

문득 늙은 여자들의 정념이 궁금하다. 언젠가 그리움이나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의 사랑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을지 모르다. 그들은 어디에 정념을 숨기고 살까? 그들의 은신처가 참으로 궁금하다. 그들이 밝히는 삶의 등불과 거기 비친 의로움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자원봉사자가 지키는 독일 와덴해 갯벌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방조제를 넘어서자 넓은 초지 너머로 꼭 성냥개비만한 등대가 나타났다. 1906년 만들어진 높이 41.5m의 등대다. 멀리 떨어져 있어 작게 보인 것이다. 그만큼 먼 길을 걸어야 한다. 섬이라 해야 해낼 수 십m 모래언덕이고, 내륙은 해수면보다 낮다 보니 멀리서도 그 모습이 뚜렷하다. 그 기능을 다하고 지금은 ‘와덴해 갯벌국립공원’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객 센터로 이용된다. 와덴해는 독일을 중심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3국 연안습지를 말한다.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지금은 자연보존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관리 중이다.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우리에게는 귀감이고 모델이 되는 곳이다.

등대센터까지 달려려면 반 시간 이상을 초지 사이 오솔길을 바삐 걸어야 한다. 초

지는 갯벌에 열과 줄을 맞춰 나무기둥을 박고 나뭇가지들 끼워 넣어 모래와 흙을 붙잡아 조성했다. 해일과 홍수를 막기 위해 대규모 방조제를 쌓는 대신에 선택한 방법이다. 그곳에는 양과 소들이 풀을 뜯어 먹고, 검은머리물떼새 등 철새들이 알을 낳고 머물다 간다. 자연재해를 예방하면서 새들에게는 보금자리를 양들에게는 먹줄거리를 제공하면서 생태여행지로 변신했다.

이 일대를 베스트해버 등대 생태지역이라 한다. 독일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튀닝에 위치해 있다. IT와 해양생태계를 결합한 독일 최고 최대의 갯벌생태관인 ‘자연의 힘 센터’나 ‘물티마’와 달리 소프 트웨어와 현장교육 중심의 작은 센터다. 하지만 생태학습, 지역관광, 자연보존, 모니터링 등 여느 갯벌센터와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 주인공이 볼런티어(자원봉사자)다.

등대센터에는 대학에 입학하고 곧바로 활동을 시작한 남학생 한 명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원한 여학생 3명 등 모두 4명이 일하고 있었다. 모두 17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갯벌 흙이 묻은 채 맨발로 우리를 반겼다. 갯벌과 염습지와 방문객센터를 부지런히 오가야 하기에 신발을 신고 벗는 것이 불편했고, 이미 미쳐 와서 일하는 선배 볼런티

어들이 벗고 일을 하니 전통이 되었다. 처음에는 맨발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연을 느낄 수 있어 좋다. 네 명이 감당하기에 넓은 면적의 갯벌생태 모니터링과 센터 관리, 방문객 안내, 중고생 단체 워크숍 기획 및 교육, 시설 보수 등 볼런티어가 해야 할 일은 공인 직원들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배 볼런티어가 지도하고 안내한다. 국립공원 직원은 가끔 들어와 부족한 생필품을 확인하고 공급해줄 뿐이다.

이들은 모두 5주에 걸쳐서 집중교육과 실습까지 마치고 현장에 배치되어 길게는 일 년, 짧게는 반년 동안 등대에 머문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가장 오래 떨어져 있는 기간이며, 자연과 가장 오래 있어 본 시간이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 묻지 않아도 얼굴에 자긍심과 자부심이 철철 넘친다. 직접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주어진 일까지 해결해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학생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고 싶어 지원했다. 대학에서 환경농업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친구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일 년 되어가 대학생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모든 계절이 다 특색이 있어 좋

지만 사람이 많이 찾지 않고 자연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겨울이 제일 좋다’고 한다. 사람이 많이 찾지 않기에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직접 기획을 해서 교구를 만들고 시설물을 보수하기도 한다.

독일의 소규모 갯벌방문객센터 중에는 자원봉사자 한 명이나 두 명이 근무하는 곳도 있다. 이들도 생태여행과 갯벌교육을 담당한다. 제방의 배수관 관리시설에 마련된 작은 안내센터는 자원봉사자 한 명이 철새와 갯벌안내를 맡고 있었다. 새로 지은 것보다 고택, 기능을 잃은 공공 건물, 기부한 가정집 등을 리모델링해 국립공원은 NGO단체에 맡기고 관리하는 볼런티어가 한다. 소규모 방문객센터일수록 주변 자연환경과 볼런티어와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운영된다. 와덴해 갯벌을 보전하고 지키는 일은 국립공원이나 전문가보다는 볼런티어 몫이다.

중앙,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 심지어는 유럽연합까지 나서서 볼런티어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만 아니다. 은퇴자, 노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다. 이들을 만나는 내내 대학입학을 위해 그리고 취업을 위해 자원체임을 고사하고 단 몇 시간 봉사활동도 엄마가 대신해주어 하는 우리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社 說

호남 출신 첫 보수여당 대표 이정현 기대 크다

어제 새누리당 새 당 대표로 곡성 출신의 3선 이정현 의원이 선출됐다. 현 정 사상 첫 호남 출신 보수 여당 대표여서 그의 당선은 우리 정치사에 큰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그의 당선은 ‘정치인 이정현’의 쾌거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현 집권여당의 분산인 영남은 물론 수도권 출신 후보들을 누르고 거둔 정치적 성과여서 당장 지역감정 철폐를 위한 대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역적 소수라는 핸디캡에도 마침내 여당의 수장에게까지 오른 그의 외길 정치 인생은 뜨거운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된 그의 앞에 놓인 과제도

많다. 우선 민생고가 가중되고 ‘사드’ 논란으로 동북아 안보 정세까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 현 정부 임기 만료까지 원활한 국정을 총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최우선 숙제로 여겨진다.

또한 당내 심각한 계파 갈등을 앓아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 보듬기에 추동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야당과의 협조는 물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청와대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한 다면 정치인으로서 그의 위상 또한 크게 높아질 것이다.

호남 출신 여당 대표로서 ‘탕평’ 차원에서 그동안 인사와 예산에서 극심하게 소외됐던 지역 대변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곧 단행될 개각에서 능력 있는 호남 인사들이 중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게 하는 데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항상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목표를 진정성을 통해 성취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이 대표가 이제 원내하고 폭 넓은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전남 친환경농업 고사 위기 대책 마련을

농도(農道)인 전남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최근 4년새 급격히 줄어들었다. 6만 호에 달하던 생산 농가가 2만5000호로, 재배 면적은 7만 5000ha에서 3만 6000ha로 감소했다. 게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용 친환경농산물 판로가 더욱 좁길 처지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농산물은 3만 6464ha에서 9만 6002t(20.9%)이 생산됐다. 하지만 문제는 해가 갈수록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5만9298호였던 친환경농가는 매년 감소해 지난해 2만 5360호로 무려 42.8%나 줄었다. 재배 면적과 출하량도 44만 297t을 출하했던 전남 친환경농산

물은 지난해에는 10만 t 이하로 줄었는데 4년 사이에 48.3%나 감소한 것이다.

도내 친환경농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때문이다. 지난해 2010년 저농약 인증 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는 대신 일반 농법으로 회귀하기도 했다. 또 2013년 친환경 부실 인증 파동 이후 정부가 인증 요건을 강화한 것도 친환경농업이 위축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2017년까지 친환경 재배 면적 비율을 10%로 확대한다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제라도 탁상공론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곡동 골목에서 당시 여섯 살이던 김태완 군이 황산 테러를 당했다. 김 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단진 황산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시력을 잃었다. 입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폐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7월 8일 숨졌다.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가 가족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재수사에 나섰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2014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망 시점으로 부터 15년으로, 2014년 7월 8일 지정이었

태완이법

다. 김 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 3일 전을 앞두고 용의자를 특정해 검찰에 고소했고 재정신청을 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기각됐다. 범인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여론이 일어났다. 정부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면서 이름을 ‘태완이법’이라고 불렀다.

태완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이 지난 5월 나주 드들강 여고생 피살 사건의 용의자에게 이 법

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01년 2월 4일 17세 여고생이 드들강에서 피살된 후 11년간 범인을 찾지 못하다가 2012년 8월 여고생의 몸에서 발견된 체액과 유전자 일치한 용의자를 찾으면서 활기를 띠는 듯 했다. 하지만 경찰의 재수사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검찰의 지말한 증거 보강으로 15년 만에 용의자를 범정에 세우게 됐다.

태완이법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지난해 4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다. 그동안 피해자 가족이 겪은 고통은 행언할 수 없을 정도

였다.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딸이 숨진 지 8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는 15년을 눈물로 지냈다.

용의자를 기소한 날은 마침 피해자의 생일날이었는데 검찰의 의지를 보여 주는 듯하다. 광주·전남에는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이 18건이나 된다. 태어와 함께 피살된 내방동 30대 임신부 살해 사건, 추리소설에나 나올 법한 광산구 주유소 관리소장의 ‘밀실 살해 사건’의 범인도 반드시 법정에 서게 해야 할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